

직접민주지역자치당(가칭) 발기취지문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해온 지 60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기후위기 속 경제사회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허구적 균형발전 속 지역은 소멸되고 철지난 이념적 진영싸움에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 터지는 생존경쟁에 자살률 1위, 한 해 0.78명 출생률을 가진 소멸 전망 1위 국가로서 한마디로 절망 직전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다중적인 위기 속에 갈 길은 멀고 시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정책, 원전정책, 국방·외교정책까지 이기심에 찌든 이들 엘리트층의 진영싸움, 망국적 정치대립과 분열로 망가지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국민을 선동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 욕망과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는 대의제 정치인들에게 우리 주권 모두를 맡겼고 우리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개혁안으로 정치인 주도가 아닌 일반시민 주도의 정치주권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주권행사를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의 핵심인 직접민주제 개헌을 이뤄내어 대의제 기반의 대한민국 정치를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융합하는 정치제도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정치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자유로운 정치결사를 위한 정당법 개정, 생활근거지 읍·면·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천권, 재정권, 활동권, 인사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정당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지역당연합 전국정당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기본적 강령과 방향만 제시하고 중요한 세부 정책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 일반시민 주도의 국민입법권을 허용하는 직접민주제 헌법 개헌으로 사회 대전환의 정치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위스식 직접민주제 실시로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 등 대전환기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과 공동체를 중시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를 평화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소생을 위한 지역자치주권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권행사에서 출발한 탈중앙의 준연방제적 다극체제화, 비례성 강화에 의한 다당제 연합정치, 그리고 지역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통해 자주적 주민주도의 지역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나, 중앙당 중심의 기존 정당과 달리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당들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고 전국적인 협동조합형 정당으로 연합하고 지역을 우선시하는 보충성 원리로 협력하는 전국정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정치플랫폼을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폭넓게 활용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으로 혐오와 불신의 정치를 공감과 신뢰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지역에서부터 세상을 바꾸어 나갑시다!

지역주민 주도로 자치주권을 실현할 직접민주지역자치당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2024년 2월 17일

직접민주지역자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